

물대포안전 경찰해명은 '모두 거짓말'

노동과 세계 | 승인 2008.06.02 15:38

이명박정권 촛불든 네티즌·시민항해 무차별 폭력 일삼아

[사진1]

[대체] 서울경찰청 명영수 경비과장이 지난 1일 청와대 행진을 벌이던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수차례 살수해 시민들이 부상한 사실에 대해 “물대포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해 네티즌들이 격분했다.

네티즌 ‘시민’ 씨는 영국 정부기관도 “물대포는 분명한 안구상해 위험이 있다”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찾아내 온라인 상에 알리는 등 네티즌들이 언론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 씨는 2일 온라인 글을 통해 “지난 6월 1일 서울경찰청은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기사보기)”이라는 해명을 하였는데, 물대포는 경찰 진압 장비 중 가장 안전한 장치이므로,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해명이었다”며 “영국의 한 정부기관 자료에 따르면, 물대포는 분명한 안구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정부 관련 연구기관인 DSTL(The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는 홈페이지(<http://www.dstl.gov.uk>)는 북아일랜드가 지난 2년 동안 벨기에로부터 물대포차를 빌려 사용하고 있고, 물대포에는 분명한 안구상해 위험이나 물줄기에 의한 낙상 위험이 있지만, 본 기관에서는 인체의 다양한 부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측정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찾아내 소개했다.

이어 시민 씨는 “위키백과 등 외국 사이트에서도 물대포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는 글을 전하며 “영국의 국방 과학 위원회(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대포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첫째는 물줄기 자체로 인한 부상(1차적 부상), 둘째는, 물줄기로 인한 거리 기물 파편에 의한 부상(2차적 부상), 셋째, 물줄기로 인해 인체와 딱딱한 물체 혹은 땅바닥에의 충돌에 의한 부상(3차적 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키백과(wikipedia)는 사망 위험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물대포는 비장파열 등의 인체 내부의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이를 방치해 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Spiritus-Temporis라는 사이트는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주로 생산을 하고 구입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http://www.spiritus-temporis.com/water-cannon/riot-control.html>)”고 서울경찰청의 물대포 무위험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진2]

네티즌은 “물대포가 안전하다는 경찰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규탄하고 “물대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이고 당장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자료에 따르면 물대포(water cannon) 사용은 그동안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안구손상이나 부상에 대한 위험은 이미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하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경찰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거짓 해명을 한 경찰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을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박아무개(37세) 씨의 경우 “1일 새벽 5시경 경찰의 물대포에 가격 당하고 경찰이 달려와 넘어진 피해자를 군화발로 가슴, 배, 머리 등을 집단구타 했으며, 피해자는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부딪혀 MRI 검사결과 귀 뒤쪽에 뇌출혈 증세가 발생했다”고 피해 상황을 알렸다.

또 18살 이아무개 씨는 1일 새벽 5시 30분경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오른쪽 귀고막 4분의 1이 없어졌고, 박아무개씨(24) 씨는 물대포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아 얼굴이 멍개지면서 전체에 타박상을 입었다.

[표시작]네티즌 '종로소방소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물대포 물공급 명령 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일 시민강제진압 물대포 물공급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 '나는전설이다' 씨는 시민들을 실명 위기에 놓이게 만든 경찰 물대포요 물을 공급한 종로소방소 차량이 물대포 옆에 8대가 있었다며 종로소방서에 확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로소방서에 경찰 물대포용 물 공급을 명령했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 6월 1일 새벽, (경찰)살수차 옆에 있던 소방차가 있었고, 그 소방차는 경복궁 화재발생 진화용이라고 했지만 경찰 살수차 물공급용 이었다"고 격분했다. 다음은 그가 밝힌 종로소방서 통화내용 전문 전문이다.

▲시민=어제 시위현장에서 종로소방서차가 3시간 넘게 있으면서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대문소방서(탱크차)는 종로소방서 탱크차에 물을 공급해 주고 가더라.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관이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종로소방서=종로소방서에는 탱크차가 8대나 됩니다.

▲시민=그럼 종로소방서에는 탱크차가 남아둔다는 말입니까?

△종로소방서=그건 아닙니다.

▲시민=소방관이 화재진압을 안 하고 국민세금으로 인력과 장비가 남아돌아 시위현장에 3시간이나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는군요. 이것도 소방서 본연의 의무입니까?

△종로소방서=(약간 곤혹스러운 듯)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장 명의 명령서를 받으면 출동합니다.

▲시민=그럼 탱크차 출동의 최고 명령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겠네요?

△종로소방서=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장 명령서가 내려오면 출동합니다.(끝)[표끝]

지난 5월31일부터 6월1일 아침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벌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과 함께 농성을 벌이던 시민들을 정조준해 경찰은 물대포를 살수하고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강제 폭력진압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 230여 명의 시민이 폭력연행 당하고 60명 이상이 중부상을 입는 등 이명박 정권의 무차별적인 공권력 폭력이 도를 더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정권의 공권력 폭력이 극심해지자 2MB탄핵연대 네티즌과 시민들이 합세해 경찰폭력 실태를 국제연합과 해외언론 등에 알리는 등 비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경찰폭력에 더 시달릴 수 없다"며 "경찰폭력에 맞선 정당방위 차원의 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특벽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